

ISO 기술보고서, 비상시 승강기 ‘사용 가능’

건물 크기, 설계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도움



▲ ISO는 건물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기존의 의견과 달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.

일반적으로 비상대피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. 그러나 최근 ISO는 승강기를 비상대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신규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번 보고서로 인해 앞으로는 비상시에도 승강기를 이용해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와 같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. ISO의 신규 기술보고서 프로젝트 리더인 Derek Smith는 “지난 수년간 대피하는데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들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”고 언급한 뒤, “승강기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건물을 대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또한 건물 크기나 설계에 따라 승강기는 대피시간을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”고 설명하였다. ISO/TR 25743:2010(승강기-비상대피 시에 승강기를 사용하기 위한 연다)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승강기로 대피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

험요소들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. 긴급 상황으로는 화재, 폭발, 화학 혹은 생물학적 공격, 홍수, 폭풍피해, 지진, 가스유출 등이 있다.

ISO/TR 25743이 비상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제공

ISO/TR 25743은 승강기 전문가들과 기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제정하였는데, 건물설계사들에게 비상시에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. 특히 이 보고서는 신축 건물이건 기존 건물이건 상관없이 모든 크기의 승강기와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. 이러한 목적을 위해 ISO/TR 25743은 ‘예’와 ‘아니오’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용자를 가이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차트를 제공하고 있다. Derek Smith는 “본 보고서는 가이드를 할 뿐 최종결정은 건물설계사가 하게 된다”는 사실을 주지시켰다. 모든 건물마다의 상이한 위험요소에 맞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가 빌딩설계사이기 때문이다.

ISO/TR 25743:2010은 ISO/TC178(승강기, 엘리베이터, 무빙워크위원회)에서 제정하였다. 본 표준은 한국표준협회(www.kssn.net) 또는 ISO 중앙사무국(www.iso.org)에서 구매할 수 있다.